

달라스, 텍사스 주 (2018 년 1 월 16 일) - [조지 W. 부시 정책 연구소](#) (George W. Bush Institute)는 오늘부터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자유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북한 자유 장학금은 미국의 탈북자들이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기회들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에 서명한 2004 년 이후로 미국에는 400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합법적인 피난민 또는 이민자로 거주해 있다.

부시 정책 연구소 자유인권팀의 부국장인 린지 로이드는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보면, 왜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향한 위험한 탈출을 감행하는지를 알 수 있다”며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미국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으며 사회 일원으로 기여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임을 상기시켜준다”고 했다.

부시 정책 연구소는 탈북자 사회의 필요를 조사하는 [연구활동](#)을 통해, 미국에 사는 탈북자들이 자립하여 살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적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을 통해 삶을 개선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부시 정책 연구소는 미주 한인동포사회를 포함한 여러 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탈북자들을 위한 장학금 조성에 힘써 왔으며, 2017 년에는 총 36 만 7400 달러(\$367,400)를 모금하였다.

지금까지 총 8 명의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등을 꿈꾸는 탈북자 대학생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으며, 장학생들은 북한 자유 장학금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데 희망을 주고 자신들도 앞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각 지원자들은 만 5000 달러(\$15,000)까지 학위 프로그램, 전문 자격증, 영어수업,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 장학금은 인증된 고등 교육기관의 학비를 포함한 도서구입비, 기숙사 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지원자는 반드시 북한에서 태어나거나 북한에서 태어난 부모의 자녀이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이전에 북한 자유 장학금을 신청했던 지원자나 장학금 수혜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서는 2018 년 4 월 1 일에 마감된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부시 정책 연구소의 지속적인 노력과 북한 자유 장학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cftexas.academicworks.com/opportunities/1196>